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은행 혼란’ 침체 가능성 높인다
- Reuters: 2월 제조 생산, 예상치 상회했다
- MarketWatch: 미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만에 처음 하락...은행전 사태 조사결과

[SVB 사태와 미국 금융]

- WSJ: 11개 대형 은행들 First Republic은행 에 3백억 기금 지원
- Time: SVB 파이낸셜 그룹, Chapter 11 파산 보호 신청
- WSJ: SVB은행, 사고 전에 신용 평가 높게 받았다
- WSJ: 엘런 재무장관, “은행 시스템 ‘건강’하다”
- The Economist: 미국 금융 산업 부패 깊다...”SVB는 시작일 뿐”

[뉴욕]

- Craine's: 뉴욕시 연봉 10만불 실제 가치는 3만6천불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한일 관계 회복 추세...중국과의 무역 위기로 공감대
- WSJ: 다시 중국으로 가는 제조업체들...미 무역협정 갱신 지연 탓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마이크로소프트, Word, Excel, Outlook에 ChatGPT 기술 도입
- CNBC: Amtrak, 인기 노선에 심야 승차 초저가 요금 발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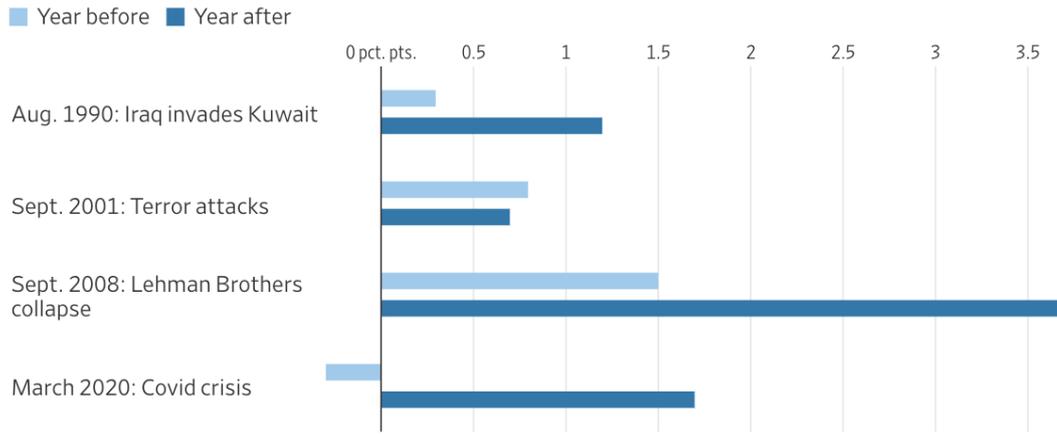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Bank Failures, Like Earlier Shocks, Raise Odds of Recession

‘은행 혼란’ 침체 가능성 높인다

- 이미 침체 취약성이 있는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 현재 경제 전망은 두가지에 달렸다. 민간 부분 신뢰 수준과 향후 연주의 금리 인상 폭이다.
- Silicon Valley Bank와 Signature Bank의 붕괴에 이어서 Credit Suisse Group AG와 First Republic Bank의 위기는 은행 대출과 기업의 고용 의지, 가계의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난다.
- Pimco의 글로벌 경제 고문이자 전 연준 부의장인 Richard Clarida는 “이번 사태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Percentage change in the jobless rate in the year before and after each economic shock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Reuters: U.S. manufacturing output beats expectations in February
2월 제조 생산, 예상치 상회했다

- 현재 소비자 지출은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데도 상품 수요는 강한 가운데 제조 산업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 2월 제조 생산은 1월에 0.1% 오른 후에 2월에는 1.2% 상승했다고 연준은 밝혔다.
- 2월 제조 생산의 상승세와 함께 광업은 0.1% 상승했고, 반면에 유틸리티 생산은 많은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으로 1월에 10.4% 급증한 후에 2.7% 감소했다.

Reuters 기사

MarketWatch: Consumer sentiment falls for first time in four months — and that was before Americans knew about SVB
미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만에 처음 하락...은행전 사태 조사결과

- 미시간대가 조사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3.4로 떨어졌다. 지난 4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2월에는 67이었다.
- 고물가와 경제 건전도에 대해 미국인들이 불안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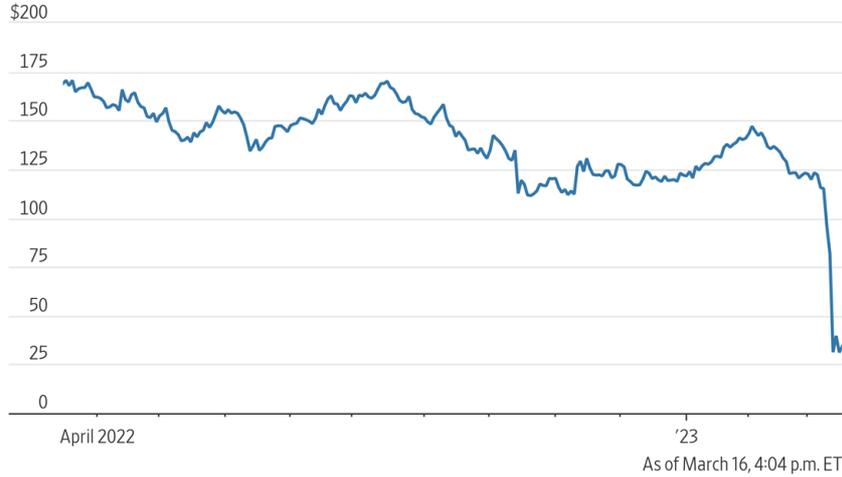
MarketWatch 기사

[SVB 사태와 미국 금융]

WSJ: Real Time Economics
11개 대형 은행들 First Republic은행 에 3백억 기금 지원

- 대형 은행들의 이같은 결정은 연방재무부와 연준 등 금융 당국과의 협의해 이루어졌다.
- 이같은 상호협력은 Silicon Valley Bank와 Signature의 폐쇄 이후 퍼스트 리퍼블릭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불거졌기 때문. 한마디로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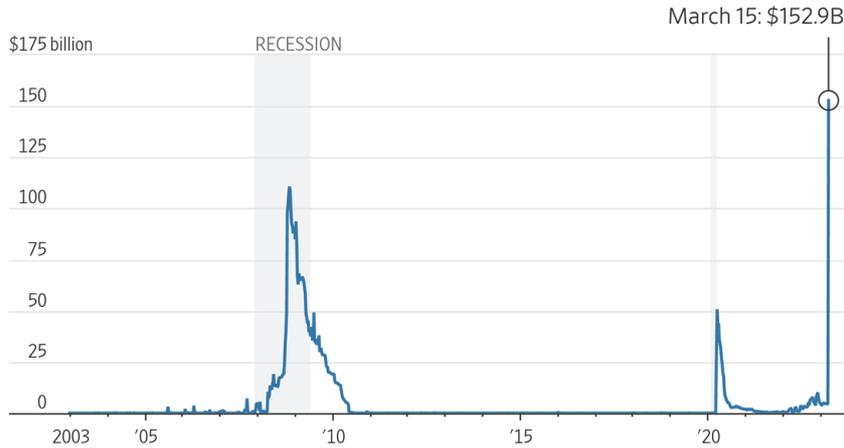
First Republic Bank's share price over the past year



Source: FactSet

- 이런 현금 유입으로 주가 하락과 예금자 이탈이라는 First Republic 은행의 즉각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은행은 여전히 더 높은 이자율과, 인출 보증없는 큰 예금 인출을 예금자들이 우려하는 이 시점에서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다.

Discount window: Federal Reserve primary credit lending



Note: Wednesday level
Source: Federal Reserve via the St. Louis Fed

- 한편 전국의 은행들은 연준의 긴급지원책(discount window and other emergency programs)에 의존했는데, 이번주 수요일 연준 긴급 창구 차입금(Discount window borrowing)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Time: SVB Financial Group Files for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
SVB 파이낸셜 그룹, Chapter 11 파산 보호 신청

- 실리콘 벨리 은행의 모회사인 SVB파이낸셜 그룹은 주로 기술 스타트업 고객층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자 파산을 신청했다.
- SVB 파이낸셜 그룹은 뉴욕에서 제출된 챕터 11 청원서에 각각 1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재했다. Silicon Valley Bank는 캘리포니아 소속 상업 은행이자 연방 준비 제도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파산 자격이 없다. 대신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관리 대상이리, 모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Time 기사

WSJ: Silicon Valley Bank's Distress Wasn't Reflected in Credit Ratings SVB은행, 사고 전에 신용 평가 높게 받았다

- 신용평가사들은 Silicon Valley Bank, Signature Bank 은행에 대해 붕괴전까지 높은 점수를 주었다.
- Moody's는 3월 8일 Silicon Valley Bank와 그 모회사에 대한 일부 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적격 이하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단기 예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었다.

WSJ 기사

WSJ: Janet Yellen Says Banking System Is Healthy After SVB Collapse 옐런 재무장관, "은행 시스템 '건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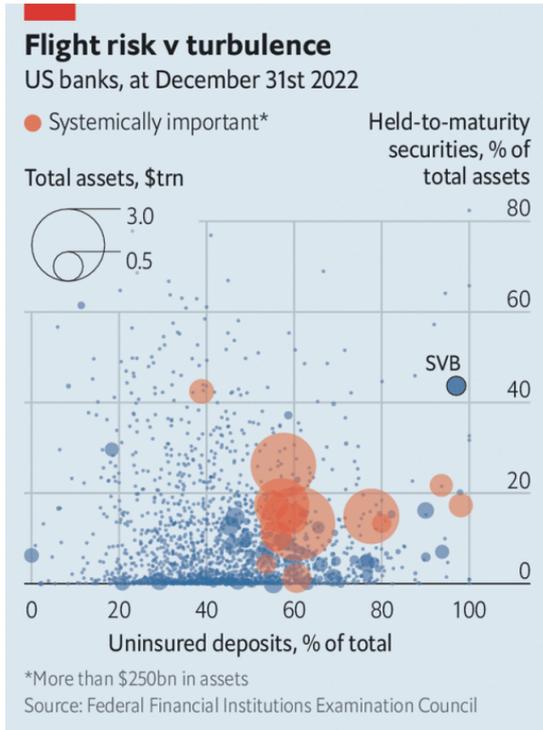
재무장관은 연방금융 위원회에 출두해 1) 두개 중형 은행의 붕괴 후에도 미국 금융시스템에 건강한 상태이며 2) 은행 감독 당국의 예금자 구제 계획이 공황의 여파를 막았다고 밝혔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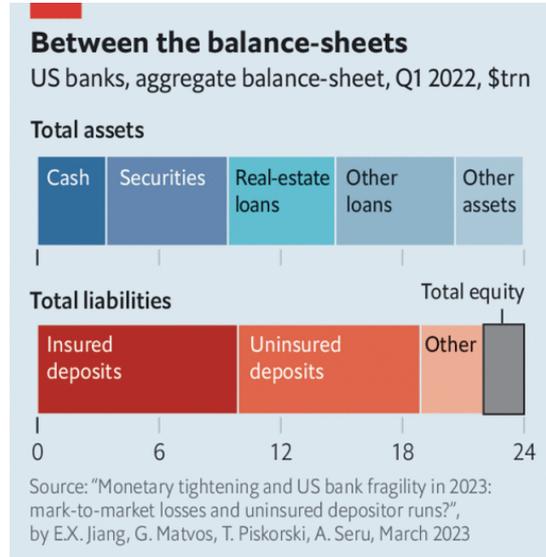
The Economist: How deep is the rot in America's banking industry? 미국 금융 산업 부패 깊다..."SVB는 시작일 뿐"

- 금융업은 자신감과 같다. 예금자들이 동시에 예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은행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유지의 첫번째 비결은 고객들이 현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SVB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는 데에 실패했다.
- SVB의 실패가 전염성이 적을 것이라는 업계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규모 은행들에 꽤 큰 영향이 미쳤고 결국 연이어 Signature Bank가 문을 닫으면서 당국이 개입하게 되었다.
-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의문점을 불러온다. 금융 위기 이후 생겨난 규제들은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고, 연준은 모든 은행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 SVB 사태는 언뜻 보기에 단일 은행의 부실한 위험 관리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금리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은 예금자에게 돈을 빚지고 있고, 사람들이 은행에 빌린 돈이 은행의 자산과 같다.
- 금리가 0%에 가까웠던 2022년 초 미국 은행들은 24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약 3.4조 달러가 예금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종의 현금이었다. 그리고 남은 방대한 예금을 기반으로 다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중 절반은 FDIC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절반은 그렇지 못했다.
- 이에 은행들은 자산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티어 원” 주식 2조 달러를 보유했다. 이어 금리가 4.5%까지 올랐고, 은행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떨어졌다. FDIC는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총 6천 2백억 달러의 미실현 시가 손실 (unrealised mark-to-market losses)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고,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불러오게 되었다.
- 연구에 따르면 탄탄한 저비용 예금을 보유한 은행들은 자산의 시가총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정 금리 대출이 많고 예금이 불안정한 은행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보험에 들지 않은 예금의 절반이 인출된다면 190개 미국 은행의 나머지 자산과 자본이 나머지 보험에 들어 있는 예금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 연준의 일시적 은행 자금 조달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연준의 대출은 약 4.5%의 시장 금리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은행이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그 이하이고 저비용 예금이 인출되기 시작하면 은행이 이자수익 손실을 입고 서서히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slow-rolling crisis” 가 올 수 있다는 것.
-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이 감독 기관, 투자자, 은행가들 스스로가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무보험 예금을 가진 소규모 은행들은 곧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은행 시스템 자산의 3분의 1은 SVB보다 작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The Economist



The Economist

The Economist 기사

[뉴욕]

Craine's: In New York City, a \$100,000 salary feels like \$36,000
뉴욕시 연봉 10만불 실제 가치는 3만6천불

- 정확하게는 3만5천7백91불 가치. 그만큼 세금이 많고, 물가가 비싸다는 반증이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처럼 실제 연봉 가치가 밑바닥 수준 10개 도시에 에 들어간 것.
- 제일 좋은 곳은 테네시주 멤피스로 8만6천4백44불이다.
- SmartAsset이 76개 대도시를 기준으로 소득세 세율과 실제 생활비 등을 고려해서 조사한 것이다.

Craine's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Japan-South Korea Thaw Underscores Shared Economic Pain Over China
한일 관계 회복 추세...중국과의 무역 위기로 공감대

- 국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수익이 감소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회복되는 추세이다. 두 동맹국을 공급망과 안보 네트워크로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

- 중국은 한일 모두에게 가장 큰 수출처이자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내부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대중국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면서 두 국가 모두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익성을 잃고 있다. 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안보 관계로서도 중요한 파트너이다.
-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2011년 이후로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일본은 2019년부터 시행해온 일부 기술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에 제기한 규제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Manufacturers Move Back to China as Renewal of U.S. Trade Deal Is Delayed

다시 중국으로 가는 제조업체들...미 무역협정 갱신 지연 탓

-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생산지를 중국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기던 제조업체들이 다시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이 개발도상국들과의 수십년 된 무역협정을 갱신하지 않고 있는데다 중국의 저렴한 배송비와 생산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 GSP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는 무역 협정으로, 1970년대에 시작되어 12번 이상 갱신되어왔지만 2020년 만료 후 미국 내 정권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갱신이 좌절되었다.
- GSP의 만료로 태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그동안 미국에 면세로 수입이 가능했던 119개 개발도상국 생산품에 관세가 부과됐다. 제품의 질, 정교한 공급망, 빠른 생산성 등에서 이미 중국이 우위에 있었고 중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Microsoft is bringing ChatGPT technology to Word, Excel and Outlook

마이크로소프트, Word, Excel, Outlook에 ChatGPT 기술 도입

-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주 목요일 자사 프로그램인 Word, Excel, Outlook 등에 ChatGPT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문서의 편집, 요약, 작성, 비교를 돕는 AI "Co-Pilot"을 곧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카이프 통화 중에 회의 노트를 기록하고, 긴 이메일을 요약해 답변 초안을 작성하거나 엑셀에서 특정 차트를 만들고, 몇 초 만에 워드 문서를 ppt로 바꿀 수 있다.
- 비록 AI의 도입이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우려를 사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더 쉽고 덜 지루한 업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AI의 이러한 도입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어떻게 전환될지 주목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Amtrak announces ultra-cheap fares for late-night rides on popular routes

Amtrak, 인기 노선에 심야 승차 초저가 요금 발표

- Amtrak이 이번주 목요일 미 북동부 뉴욕, 워싱턴DC,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등 일부 인기 노선에서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행하는 노선에 5~20달러의 초저가 열차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이는 인플레이 속에 압박받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줄여 여행 수요를 유지하고, 항공 수요의 강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Amtrak의 북동부 노선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며 통근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지난 해에는 가격이 더 비싸져 때때로 항공권 요금을 능가하기도 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대형 은행 11곳, 위기설 퍼스트리퍼블릭에 39조원 수혈"

"은행에 자체 자금 예치..."중소 은행, 금융시스템에 대단히 중요"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빠진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모아 해당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대형 은행 11곳은 16일(현지시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총 300억달러(약 39조원)를 예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가 각각 50억달러를 예치하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각각 25억달러를 넣기로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